

2020년 11월 13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백신 낙관주의 경고로 낙폭 확대

파월, 백신은 만병 통치약이 아니며 몇 달간 매우 어려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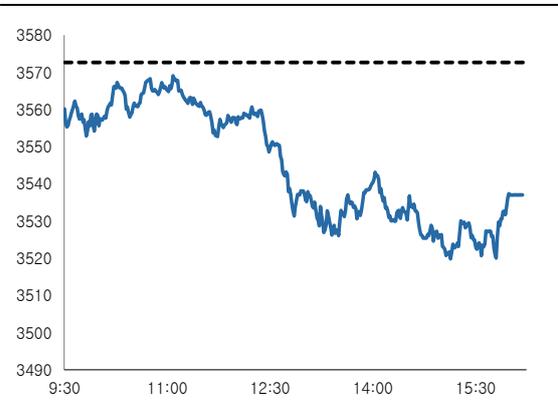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코로나 확산, 경제 봉쇄 우려, 추가 부양책 지연

미 증시는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급증 여파로 하락 전환. 더불어 미국의 경제 봉쇄 가능성이 부각된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이 백신 낙관주의에 경고를 하자 낙폭 확대. 여기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가 부양책을 놓고 더욱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경향을 보인 점도 영향. 특히 금융, 에너지, 제약업종이 하락 주도(다우 -1.08%, 나스닥 -0.65%, S&P500 -1.00%, 러셀 2000 -1.64%)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14만 4,270 명을 기록했고, 일주일 하루 평균이 12만 7,474 건을 기록해 지난 주 대비 35% 증가. 특히 미국의 모든 주에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급증. 이는 오늘 하루 사망자가 1,562 명이 발생했으나, 향후 더욱 확산 될 것을 우려하는 요인. 이를 막기 위해 바이든 코로나 TF 팀은 최대 6 주의 경제 봉쇄가 필요하다고 주장. 이를 통해 입원 환자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사망자가 감소될 것이라고 언급. 더불어 경제 봉쇄 기간 부양책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발표.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2.2 조달러, 5 천억 달러 규모에서 물러서지 않는 등 더욱 극단적으로 변화. 시장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부양책 지연을 감안 연준이 몇 달안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파우치 소장은 백신은 도움이 되지만 코로나를 근절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백신 낙관주의에 경고해 백신이 나온다고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시시킴. 파월 연준의장도 백신이 경제에 즉각적인 만병 통치약이 아니라며 백신 낙관주의에 경고. 파월은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랐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개선 속도는 느려지고 있고 계층별로 고르지 않다고 언급. 이와 함께 백신 개발은 중기적으로 좋은 소식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앞으로 몇 달간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베일리 BOE 총재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거기에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고, 전일 백신 낙관주의에 경고를 했던 라가르드 ECB 총재도 코로나 재 확산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을 주장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475.62	-0.41	홍콩항성	26,169.38	-0.22
KOSDAQ	840.08	+0.02	영국	6,338.94	-0.68
DOW	29,080.17	-1.08	독일	13,052.95	-1.24
NASDAQ	11,709.59	-0.65	프랑스	5,362.57	-1.52
S&P 500	3,537.01	-1.00	스페인	7,726.00	-0.87
상하이종합	3,338.68	-0.11	그리스	657.01	-0.21
일본	25,520.88	+0.68	이탈리아	20,817.73	-0.8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 에너지 하락 주도

모더나(+6.51%)는 백신 임상 데이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했다. 반면, 화이자(-2.47%), 바이오엔텍(-7.14%)은 유통, 생산 등에 대한 문제 등이 부각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아스트라제네카(-2.03%), 길리어드사이언스(-0.02%) 등도 부진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서비스나우(+1.28%)는 모건스탠리가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경향이 높아 이익 개선이 확대 될 것이라며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반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인 세일즈포스(-1.87%)는 성장의 지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했다.

온라인 자동차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브룸(-13.01%)은 더 큰 라이벌 회사인 카르바나(+3.61%)가 연 41%의 매출 증가를 기록한 데 반해 5.1% 감소를 기록하자 브룸은 급락하고 카르바나는 급등했다. 인텔(-3.02%)은 애플(-0.23%)의 자체 칩 발표로 매물이 지속되고 있으며 오늘도 낙폭이 컸다.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자 JP모건(-1.23%), BOA(-2.38%) 등 금융주는 부진했다. 엑손모빌(-3.43%), 코노코 필립스(-3.60%) 등 에너지 업종은 IEA가 빠른 수요 회복에 의문을 표시하는 등 코로나 영향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디즈니(-1.67%)는 5% 상승을, 시스코 시스템(-1.68%)은 8% 상승을, AMAT(-1.91%)은 3% 상승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4.02%	대형 가치주 ETF(IVE)	-1.28%
에너지섹터 ETF(OIH)	-2.24%	중형 가치주 ETF(IWS)	-1.71%
소매업체 ETF(XRT)	-2.19%	소형 가치주 ETF(IWN)	-2.08%
금융섹터 ETF(XLF)	-1.66%	대형 성장주 ETF(VUG)	-0.58%
기술섹터 ETF(XLK)	-0.89%	중형 성장주 ETF(IWP)	-0.5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07%	소형 성장주 ETF(IWO)	-1.08%
인터넷업체 ETF(FDN)	-0.06%	배당주 ETF(DVY)	-2.25%
리츠업체 ETF(XLRE)	-1.03%	신흥국 고배당 ETF(DEM)	-1.55%
주택건설업체 ETF(XHB)	-1.5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2%
바이오섹터 ETF(IBB)	+0.01%	미국 국채 ETF(IEF)	+0.57%
헬스케어 ETF(XLV)	-0.37%	하이일드 ETF(JNK)	-0.56%
곡물 ETF(DBA)	-0.53%	물가연동채 ETF(TIP)	+0.28%
반도체 ETF(SMH)	-1.08%	Long/short ETF(BTAL)	+1.9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45.21	-3.39%	+9.78%	+4.71%
소재	426.23	-2.17%	-0.05%	+3.00%
산업재	708.21	-1.16%	+3.20%	+3.43%
경기소비재	1,228.51	-1.18%	-2.66%	-3.29%
필수소비재	683.51	-0.21%	+2.63%	+0.44%
헬스케어	1,288.60	-0.40%	+0.67%	+3.51%
금융	441.35	-1.68%	+5.73%	+6.38%
IT	2,111.15	-0.94%	-0.95%	-1.19%
커뮤니케이션	210.46	-0.47%	-0.57%	+5.05%
유틸리티	331.75	-1.73%	+1.60%	+3.10%
부동산	227.03	-1.02%	+2.42%	+1.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행보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7% MSCI 신흥 지수 ETF 는 0.75%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5.5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했다. 특히 백신이 개발 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영향은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 등 백신 낙관주의가 약화된 점도 부담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파월 연준의장의 코로나 우려 언급과 미국 의회의 마찰 확대로 부양책이 내년이나 집행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한 점은 투자심리 위축 요인이다. 물론 코로나 재 확산 이슈는 전일 한국 증시에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장 초반 미치는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시스코, AMAT 등 주요 기업들이 미 증시 마감 후 양호한 실적 발표 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미 증시 하락 영향을 제한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지연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미국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유럽에 이어 미국의 경제 봉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중요하다.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미국에서 부양책이 지연된 가운데 봉쇄가 단행 되면 가계 및 기업 신용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코로나 통제를 위한 경제 봉쇄와 부양책 집행을 동시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양책이 지연되면 연준이 이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 의회 권력의 마찰 확대, 트럼프의 거부 가능성 등을 감안 하면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일부 봉쇄는 미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10 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mom +0.2%)를 하회한 전월 대비 변화가 없었다. 전년 대비로도 1.2% 상승해 예상(yoy +1.3%) 를 하회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변화가 없었으며 전년 대비로는 1.6% 상승에 그쳐 예상을 하회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70.9 만건을 기록해 예상(73.7 만건)을 하회했다. 4 주 평균으로도 75 만 5,250 건으로 지난주 78 만 8,500 건보다 감소해 고용시장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국제유가는 코로나의 폭발적인 증가로 하락 했다. 특히 세계 에너지기구(IEA)가 원유 수요가 2021년까지 백신이 개발 된다고 해도 몇 주만에 삶이 정상화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 될 것으로 전망하며 수요 회복에 의문을 표시한 점이 부담이었다. 여기에 미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 주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인 70 만 배럴 감소와 달리 428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코로나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방향성을 잃은 가운데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이 악화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는 보험권을 보인 가운데 여타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30 년물 국채입찰은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35 배)를 하회한 2.29 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약화 되었으나 코로나 재 확산 등으로 하락했다. 특히 미국 경제 봉쇄 가능성이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장기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 및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0.6%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와 코로나 이슈가 충돌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49%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1.12	-0.80	+6.01	Dollar Index	92.965	-0.08	+0.48
브렌트유	43.53	-0.62	+6.35	EUR/USD	1.1807	+0.25	-0.16
금	1,873.30	+0.63	-3.78	USD/JPY	105.12	-0.29	+1.58
은	24.306	+0.16	-3.51	GBP/USD	1.3118	-0.79	-0.23
알루미늄	1,930.00	+0.63	+1.71	USD/CHF	0.9153	-0.22	+1.17
전기동	6,934.00	+0.71	+1.19	AUD/USD	0.723	-0.70	-0.73
아연	2,626.00	+0.08	+0.40	USD/CAD	1.3141	+0.60	+0.74
옥수수	418.25	-2.05	+0.84	USD/BRL	5.4584	+1.08	-1.47
밀	597.25	-1.44	-2.65	USD/CNH	6.6191	+0.02	+0.15
대두	1,145.50	-0.61	+3.78	USD/KRW	1114.80	+0.43	-1.19
커피	112.95	+0.89	+4.15	USD/KRW NDF1M	1115.52	+0.25	-0.7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883	-9.21	+12.03	스페인	0.130	-2.50	+4.10
한국	1.646	-2.40	+12.10	포르투갈	0.101	-2.10	+2.80
일본	0.030	-1.10	+0.80	그리스	0.799	-1.60	-2.80
독일	-0.536	-2.90	+10.10	이탈리아	0.683	-5.40	+1.7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